

【발표 3】



동아시아 공유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전통 줄다리기

정 연 학 |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

1. 서론

이번 학술대회 주제인 줄다리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무형문화유산이다. 1930~40년 이전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줄다리가 성행하였고, 1960년대 전통문화의 보존 정책과 맞물려 현재는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지정문화재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줄다리는 단일 종목으로 8곳이나 지정되었고,¹ 국내 연구도 다른 민속분야에 비해 성과가 축적되었다.²

줄다리는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여러 나라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공동등재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맥락과 연계하여 필자는 이 글에서 동아시아의 전통 줄다리의 보편성을 밝히는 것을 그 목적으로 두었다. 그러나 우리와 일본³을 제외하고 동남아시아의 줄다리에 대한 연구 자료는 부족한 상태라서 이번 발표에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경우도 전통 줄다리에 대한 문헌적인 내용은 존재하나, 현재의 줄다리는 의례보다는 운동 경기 종목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 글은

¹ 국가지정 : 영산줄다리기(국가지정제 26 호), 기지시줄다리기(국가지정제 75 호)

시도지정 : 삼척기줄다리기(강원지정제 2 호), 감내계줄당기기(경남지정제 7 호), 의령큰줄땡기기(경남지정제 20 호), 남해선구줄끗기(경남지정제 26 호)

민속문화재 관련 : 포항모포줄다리기(모포줄 국가지정제 187 호), 김제입석줄다리기(월촌입석 전북지정제 7 호)

² 줄다리에 대한 연구는 사회문화적 해석, 역사성과 지역성, 현지조사 민속지, 문화콘텐츠 활용방안, 비교연구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서해숙, 「도작문화축제로서 줄다리의 전승 연구」, 『남도민속연구』 제 22 집, 2011, 136~148 쪽)

³ 일본의 줄다리는 국가지정이 10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오키나와가 현재 국가지정을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수도작 문화를 기반으로 한 동아시아 전통 줄다리기 공동등재 지원사업 자문회의 자료집』, 2013. 03. 22,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문헌자료와 인터넷, 기존 기지시줄다리기보존회 주관의 심포지엄 자료 등을 근간으로 작성된 미완성 글임을 사전에 밝힌다.

2. 본론

1) 줄다리기와 전쟁 단어

줄다리기의 명칭은 다양하다. 그런데 영어나 한자 표기에 ‘전쟁’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것은 재미있다. 영어로 줄다리기는 ‘a tug of war’라고 표기하고, 우리는 한자로 갈전(葛戰), 삭전(索戰)⁴ 등으로 명기한다. 또한 우리 줄다리기에 ‘줄대장’과 깃발이 등장하는 것도 줄다리기와 전쟁의 관련성을 보인다. 중국은 ‘전쟁’을 가리키는 단어는 보이지 않지만, 줄다리를 나타내는 ‘구강(鉤強)’, ‘견구(牽鉤)’⁵, ‘시구(施鉤)’, ‘타구(拖鉤)’ 등으로 명기하는데,⁶ 이것은 초와 오나라의 수전(水戰)에서 사용한 도구에서 기원한 단어이다.⁷ 그밖에 당나라 봉연(封演)의 『봉씨견문록(封氏聞見錄)』에는 “줄다리를 ‘발하(拔河)’라고 하여, 정월 보름에 두 편으로 나뉘어 대나무 껍질을 이용한 쌍줄 형태로 잡아당기며 승부를 겨루었는데, 역시 초와 오의 전쟁을 모방한 것에서 유래하였다.”⁸ 라고 적어 ‘발하(拔河)’의 하(河)가 수전과 관련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줄다리기의 영어에서 ‘전쟁’ 표현은 줄다리기의 격렬함이 전쟁과 맞먹기에 붙여진 명칭으로 보인다. 또는 중국 줄다리기의 역사적 유래에서 그 의미를 따온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일본에서는 줄다리를 ‘츠나히끼(綱引き)’라고 해서 줄다리기의 행위를 단어로 표기하였다.

4 중국 한대 사전인 『說文解字』에는 “승(繩)은 삭(索)이다”, 『爾雅』에는 “큰 것은 삭(索)이고 작은 것은 승(繩)이다”, 『급취편(急就篇)』에는 “승(繩)은 두 가닥 이상을 꼬아 합쳐서 만든 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따라서 삭전은 두 가닥 이상으로 꼰 긴 줄다리를 가리킨다.

5 『隋書·地理志』

6 줄다리를 가리키는 ‘구강(鉤強)’, ‘견구(牽鉤)’, ‘시구(施鉤)’ 등의 한자 가운데 ‘구(鉤)’를 비녀목으로 보기도 한다.(옹몽하, 「줄다리기의 문화적 해석」, 『2010 기지시줄다리기 국제심포지엄』, 2010.4.9, (사)국제아세아민속학회, 46~47 쪽.)

7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 (입춘일에는) 시구(施鉤) 놀이를 한다. 대나무 껍질을 꼬아 서로 연결하면 그 길이가 몇 리에 이르고, 북이 울리면 잡아당긴다(爲施鉤之戲 以繩作箋纜相罽 綿亘數里 鳴鼓牽之). 시구 놀이는 여러 외전(外典)을 찾아보아도 그 전례를 발견할 수 없다. 공수(公輸)가 초(楚)나라에 가서 배 싸움 놀이를 하였는데 물러나면 구(鉤)로 당기고, 나아오면 강(強)으로 밀기 때문에 이를 ‘구강(鉤強)’이라고 하였다. 구(鉤)를 가지고 놀이를 하게 된 것은 아마도 여기에서 비롯된 듯하다.(按施鉤之戲 求諸外典 未有前事 公輸自遊楚爲載舟之戲 退則鉤之 進則強之 名曰鉤強 遂以鉤爲戲 意起於此 涅槃經曰 鬪輪罽索 其外國之戲乎 今鞦韆 亦施鉤之類也施或作拖)

8 拔河吉謂之牽鉤一作拖鉤襄漢風俗 常以正月望日爲之相傳 楚將伐吳以此教戰 古用箋纜今民則用大麻 經長四五十丈 兩頭分繫數百條分二朋 兩相齊拖當大經之中立 大旗爲累震鼓叫喚 使相牽引以却者爲勝就者爲輸 名曰拔河

2) 줄다리기 분포권

줄다리기는 아메리카, 아프리카, 영국 등지에도 분포하나, 집중지역은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이다.⁹ 즉, 한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대만 등이다.¹⁰ 이들 지역은 벼농사를 생업으로 곳이 압도적으로 많아 줄다리가 수도작 농민들이 즐긴 놀이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의 경우도 벼농사가 발달한 큐슈지역에 줄다리가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중국 줄다리의 기원지로 여기는 양자강 중류 형초(荊楚)지역도 벼농사 중심지이다. 줄다리기가 상이 조각된 캄보디아 크메르의 앙코르와트사원 지역도 전통적으로 2모작을 하는 대표적인 도작지대이다. 동남아시아의 경우도 화전민에게 더러 나타나지만, 벼농사지대에 많이 분포를 보여 농경민의 습속으로 본다.¹¹

이러한 사례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1930년대 줄다리기 분포 설문지를 보면, 총 161 지역 가운데 벼농사지역인 남한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¹² 또한 함경북도 지역은 줄다리가 분포하고 있지 않아, 줄다리가 벼농사를 농업 기반으로 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나타낸다. 줄다리의 도별 분포 비율도 전라·경상·충청 지방이 70%를 상회하고, 경기·강원 지방은 50% 내외, 황해·평안·함경 지방은 20% 내외이다. 이러한 현상은 줄을 만드는 주재료가 ‘벚짚’이고, 칩·역새·죽피 등은 보조 재료로 활용되었기 때문으로 본다.¹³

그런데 동북아시아 문헌에 등장하는 최초의 줄은 ‘짚’이 아닌 ‘대나무 껍질’, ‘마’, ‘칩’, ‘역새’이다. 또한 한국이나 일본 모두 벼농사 지역은 물론 한전, 해안 지역에서도 줄다리를 한 것을 보면 벼농사 지역과 직접적으로 관련짓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오늘날 줄은 주로 짚으로 만든다. 그래서 줄다리를 벼농사 지역과 연결시키는 것도 그러하다. 그러나 산촌이나 어촌의 줄다리기는 경우 짚 대신 칩, 삼(麻), 대나무 등이 이용되었다. 또한 벼농사 중심의 농촌인 경우도 다용도로 사용되는 짚을 줄 제작에 사용하는 것은 그리 용이한 것이 아니어서 짚과 삼베, 칩닝쿨, 늑다리 등과 함께 꼬아 줄을 제작하였다.¹⁴ 짚으로 만든 줄은 수도재배의 일반화로 벚짚 확보가 용이해지면서 짚으로 일

⁹ 김택규, 『한국농경세시의 연구』, 영남대출판부, 1985, 227~229 쪽.

사쿠라이 타츠히코 교수, 「아시아 줄다리기의 분포와 특징」, 『2010 기지시줄다리기 국제심포지엄』, 2010.4.9, (사)국제아세아민속학회, 18~19 쪽.

¹⁰ 김광연, 『동아시아의 놀이』, 민속원, 2004, 598 쪽.

소우가와 쓰넌오 지음(이승수 옮김), 『놀이의 역사민족학』, 민속원, 2005, 160 쪽.

¹¹ 소우가와 쓰넌오 지음(이승수 옮김), 『놀이의 역사민족학』, 민속원, 2005, 160~161 쪽.

¹² 村山智順, 『朝鮮の郷土娛樂』, 朝鮮總督府, 1941.

¹³ 허용호, 『민속놀이의 전국적 분포와 농업적 기반』, 『민족문화연구』 제 41 호, 41~57 쪽.

서해숙, 「도작문화축제로서 줄다리의 전승 연구」, 『남도민속연구』 제 22 집, 2011, 4 쪽.

¹⁴ 이우영, 『기지시줄당기기』, 집문당, 1986, 11 쪽.

원화 된 것으로 보인다.¹⁵ 『동국여지승람』에서도 제주도의 줄다리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제주도의 줄다리기가 ‘벗짚’이 아님은 자명하다.

침줄 사용지역은 영남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그 줄다리기를 갈전(葛戰)이라고 불렀다.¹⁶ 실제, 경북 울진, 영일 등 동해안 지역은 침과 삼이 줄의 주재료로 사용되고, 대나무와 나무껍질이 보강 재료로 사용되었다.¹⁷ 침이나 삼줄은 줄다리기가 끝나면 벗줄로 사용되기도 하였는데, 짚 보다 내구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침으로 줄을 만든다는 것은 짚으로 줄을 만드는 것보다 일반적이지 않고 흉년으로 짚을 구할 수 없는 경우 침으로 대체한 것으로 보인다.¹⁸

일본의 줄도 정월과 8월에 줄을 당기는 곳은 새짚을 사용하나, 가고시마현(鹿兒島縣) 일대에서는 침과 짚을 겸용하거나 띠(역새)를 사용하기도 한다.¹⁹ 야쿠지마(屋久島)의 경우도 침줄로 등줄을 만들고 주위를 참억새나 벗짚으로 반죽해서 만든다.

중국의 줄다리기 줄도 대나무, 삼으로 만들었다. 당나라의 봉연(封演)의 『봉씨견문록(封氏聞見錄)』을 보면, 줄다리기의 줄은 예전에는 대오리를 만들었으나 당나라 때 삼으로 만들었고 그 길이가 40~50장(1장, 3,03m)이 된다고 적고 있다.²⁰ 종름(宗凜)의 『형초세시기』에는 고대의 줄다리기가 논둑을 사이에 두고 대나무껍질로 만든 줄을 수 리(里)에 길게 늘어뜨리고 북이 울리면 당긴다고 적고 있다.

일본 사쿠라이 타츠히코 교수는 아시아 지역의 줄다리기가 벼농사 경작민에게 압도적으로 나타나지만, 화전민·수렵민(에스키모, 아이누족)·해양민 등도 줄다리기를 즐겼고, 동아시아의 줄다리기가 벼농사 재배 어로민이 즐긴 놀이라는 새로운 결론을 제시하였다.²¹ 이것은 일본의 줄다리기가 해안 가까운 지역에 많이 분포한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들었다. 실제 일본의 줄다리기는 땅은 물론 바다에서도 행하고, 풍농은 물론 풍어를 기원하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견해를 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어업을 전업으로 하는 지역에서는 줄다리기 사례가 보이지 않는다. 물론 우리나라 강원도, 경상도 동해 해안가에서도 줄

15 한양명, 「줄당기기의 다양성과 보편성」, 『실천민속학』, 실천민속학회, 2000, 71 쪽.

16 『東國歲時記』正月 上元條/ 村山智順, 『朝鮮の郷土娛樂』, 朝鮮總督府, 1941.

17 한양명, 「줄당기기의 다양성과 보편성」, 『실천민속학』, 실천민속학회, 2000, 70~71 쪽.

18 한양명, 「줄당기기의 주술-종교적 성격과 기능체계」, 『민속놀이와 민중의식』(민속학회 학술총서)1, 집문당, 1996, 370 쪽.

19 최인학, 「줄다리기에 관하여」, 『제 2 회 민속학회전국대회 발표요지』, 한국민속학회, 1973, 72 쪽.

20 拔河吉謂之牽鉤一作拖鉤襄漢風俗 常以正月望日爲之相傳 楚將伐吳以此教戰 古用箋纜今民則用大麻 經長四五十丈 兩頭分繫數百條分二朋 兩相齊拖當大經之中立 大旗爲累震鼓叫噪 使相牽引以却者爲勝就者爲輸 名曰拔河

21 사쿠라이 타츠히코 교수, 「줄다리기, 벼농사 농경문화와 해양 어로 문화의 결합」, 『제 3 회 아세아 줄다리기심포지엄』, 2009.4.11, 당진문화원, 39-47 쪽.

다리기를 하지만, 줄다리기의 목적은 이기는 쪽이 풍년이 든다는 예측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²² 간혹 이긴 줄을 배에 실으면 풍어가 되고, 줄을 배에서 사용한 사례 등은 더러 보이나, 어민들이 줄다리기를 한 예는 보이지 않는다.

필자는 줄다리기는 농경지역의 전통문화이며, 단지 짚 대신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서 줄을 만들었다. 그러다가 벼농사가 발전하고, 다수의 짚이 확보되면서 줄을 만들기 편한 짚으로 대체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산간이나 해안 지역에서는 짚을 확보하기가 곤란해 여전히 칩, 삼, 억새 등으로 줄을 만든 것으로 여겨진다.

줄다리기 줄은 참가 구성원의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줄다리기의 줄은 참가 인원의 한계로 그 줄이 짧지만, 여러 마을을 공동으로 한 경우에는 줄은 길어진다. 그런데 긴줄(큰줄)은 줄 제작 등의 여러 문제로 연중행사가 아닌 공동적 차원에서 경축 또는 흥년이나 질병 등의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행해지는 비정기적 놀이이다. 따라서 정월 대보름 달구경 이후 밤에 행해지는 마을 단위의 전통적인 줄다리기와 달리 낮에 거행하고, 놀이적 성격이 강하다. 중국 고대 문헌에 등장하는 100m 이상 되는 줄도 관 주도의 큰줄을 나타낸 것이다.

3) 줄다리기 실크로드 종착점, 한국

우리나라의 줄다리기는 외줄, 쌍줄, 게줄(기줄) 등 그 형태가 다양하다. 이것은 지역에 따른 지역성과 다양성을 드러낸 것이지만, 줄다리가 가진 문화적 함의에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²³ 동아시아 각국의 줄도 그러하다. 일본의 경우 본토에는 외줄이 우세하지만, 오키나와의 경우는 우리처럼 쌍줄이 우세하다.²⁴ 중국은 역사적 문헌에 쌍줄이 등장하며,²⁵ 현재는 유목 소수민족을 중심으로 게줄다리를 할 정도이다.²⁶ 외줄도 당기지만 그

22 김선풍, 「삼척 기줄다리에 대하여」, 『한국민속학』 8 집, 민속학회, 1975.

이창식, 「술비통과 줄다리에 대한 고찰」, 『새국어교육』 39 집, 1984.

장정룡, 「삼척계줄다리기에 고찰」, 『강원도 민속연구』, 국학자료원, 2002, 425~458 쪽.

김도현, 「삼척지역 무형문화유산 실태조사」, 『강원민속학』 18 집, 강원도민속학회, 2004.

이창식, 「줄다리기의 원형복원과 문화콘텐츠 활용방안-삼척 기줄다리기를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제 38 집, 2009.

23 한양명, 「줄당기기의 다양성과 보편성」, 『실천민속학』, 실천민속학회, 2000, 63~83 쪽.

24 일본의 줄다리는 큐슈부터 오키나와로 넓게 분포하지만, 긴 쌍줄은 오키나와에 많다.(사쿠라이 타츠히코 교수, 「줄다리기를, 벼농사 농경문화와 해양 어로 문화의 결합」, 『제 3 회 아세아 줄다리기심포지엄』, 2009.4.11, 당진문화원, 41 쪽).

25 당나라 봉연(封演)의 『봉씨견문록(封氏聞見錄)』에는 “사람들이 삼으로 만든 40, 50 장(1 丈 3.03m)되는 몸줄에 수백 개의 작은 결줄을 달고 여러 명의 사람들이 달라 붙어 잡아 당겼다.”고 기록되어 있다.

『경룡문관기(景龍文館記)』에는 “삼으로 만든 몸줄의 양쪽에 십여 개의 결줄을 달고 하나의 결줄이 여러 명의 사람들이 달라 붙어 잡아 당겼다.”라고 역시 적고 있다.

26 사쿠라이 타츠히코 교수의 논문에서는 중국 광서성 장족자치구의 묘족(苗族)들이 13 년에 한번 중앙에 북

것은 현대식 운동경기에서 보인다. 동남아시아의 경우는 외줄이 우세하다. 위의 사실에 근거하면, 우리나라는 외줄, 쌍줄, 게줄 등 세계의 모든 줄다리기 유형이 총망라 한 셈이다.

4) 수신, 용(뱀)

줄에 대한 관념은 ‘용’ 또는 ‘생식기’ 등으로 여긴다. 우리는 줄다리기의 줄을 ‘용’이라고 인식하고 그 줄을 ‘용줄’, 외줄의 앞부분을 ‘용머리(대가리)’, 끝부분을 ‘용꼬리’라고 부른다. 강원 횡성에서는 ‘용줄’에 비늘까지 달아서 용을 형성화시키고 있다.²⁷ 쌍줄의 경우는 암줄을 ‘암룡’, 숫줄을 ‘숫룡’으로 성별화 하고, 줄다리기는 두 마리의 용이 쟁탈을 벌리고, 그 모습이 용호상박이기에 용과 호랑이의 싸움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줄을 용으로 보는 경향은 중국, 태국, 라오스 등이며, 일본과 캄보디아는 용보다 ‘뱀(이무기)’으로 인식한다. 우리나라 과천 등지에서도 줄을 ‘대맹이’, 즉 이무기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용과 뱀은 맥을 같이하는 동물이다. 뱀이 승천하면 용이 되기 때문인데, 이때 용이 되지 못한 뱀을 이무기라고 한다. 통상, 이무기는 1인자가 되지 못한 한을 풀기 위해 마을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는 존재로 여기는데, 일본에서 줄다리기가 끝나고 바다로 띄워 보내는 사례는 뱀(이무기)을 안위하고 마을의 액과 함께 멀리 떠나보내는 것이다. 줄다리기는 아니지만, 경기도 고양 송포에서도 이무기를 위로하고 바다로 떠내 보내는 의례를 매년 행하였다.

줄이 용의 상징임은 줄의 보관 및 처리과정에 두드러지게 드러난다.²⁸ 우리나라 한강변 주변지역에서는 줄다리기가 끝나면 얼음 강변에 올려두어 해빙이 되면 떠내려가게 둔다. 경기 여주 혼암리와 충북 중원 목계지역, 충남 아산에서는 줄이 떠내려가면 길하다고 여긴다. 용이 살던 곳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다. 경기도 일부지역에서는 천변 한쪽에 두어 용줄이 물과 가까이 있게 하고, 용인 죽전에서 줄다리기 줄로 보를 막으면 물이 풍부해지고 가뭄이 들지 않는다고 본다. 수신인 용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다.

줄다리를 기우제의 하나로 한 것은 줄다리기의 줄을 용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쌍줄을 당기는 것은 쌍룡이 서로 싸움으로 구름과 비를 만들기를 기대하는 주술법의 하나로 볼 수 있다.²⁹ 용을 자극하여 비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³⁰

을 걸은 외줄을 당겨 마을의 번영을 기원하였다는 내용이 보이나 실증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그리고 현재 중국의 외줄은 경기를 목적으로 한 현대식 줄이다.(사쿠라이 타츠히코 교수, 「아시아 줄다리기의 구분과 특징」, 『2010 기지시줄다리기 국제심포지엄』, 2010.4.9, (사)국제아세아민속학회, 24 쪽).

27 한양명, 「중당기기의 주술-종교적 성격과 기능체계」, 『민속연구』 제 4 집,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4, 52~53 쪽,

28 한양명, 「줄당기기의 다양성과 보편성」, 『실천민속학』, 실천민속학회, 2000, 69 쪽.

29 村山智順, 『釋尊·祈雨·安宅』, 朝鮮總督府, 1938, 141 쪽.

전북 지역에서 줄다리기가 끝나고 당산에 줄을 감는 행위를 생산의례로서의 성행위의 상징으로 보기도 하지만, 용을 마을로 모셔와서 무사태평을 빌고 풍년을 기원하는 용사신앙으로 보기도 한다. 혹은 마을의 태평을 좌우하는 동신과 농사의 풍흉을 좌우하는 용신의 결합을 통한 풍요다산이고, 이차적 의미는 당산으로 표상되는 마을의 범역 내에서 용신의 성행위를 통한 1년간의 풍요 기원으로 보았다.³¹

베트남 응에 안(Nghe An) 지방의 끈궁(Con Cuong) 지역의 타이 사람들은 ‘용꼬리 당기기’로 불리는 비를 기원하는 의례를 행해왔다. 타이 사람들은 가뭄이 용이 너무 오래자거나 지하에 갇혀있어서 생긴다고 믿어서 꼬리를 잡아당겨 용을 깨워야 한다고 믿었다. 줄다리기가 끝난 후, 마을사람들은 용의 꼬리를 상징하는 줄을 땅 깊숙이 묻고 그곳을 신성한 지역으로 남겨둔다. 그곳에서 북을 치는 의식을 행하는데, 그것은 천둥소리를 상징하고, 풍년을 기원한다.³²

5) 줄, 생식기의 상징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두 가닥으로 서로 꼬아서 만든 줄은 서로 밀착하여 강렬한 교합의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줄은 표면적으로는 용과 뱀을 나타내고 내재적으로는 남근 또는 남녀 교합의 의미가 숨겨져 있다.³³ 즉, 생식기가 생산의 근원이듯 줄이 생산력의 상징임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줄다리기가 남녀의 성행위를 상징한다는 것은 직접적인 모방에 의해서 농사의 풍요를 바라는 주술행위이다.³⁴

줄이 가진 생식기의 의미는 줄 처리 과정에도 보인다. 보관 중인 줄을 넘어가면 아이를 잉태하고, 임산부가 이긴 줄을 다려 먹으면 임신을 한다는 것은 줄이 가진 생식기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밖에 줄을 지붕 위나 대문에 걸어두면 액이 침범하지 않고, 병자가 달여 먹으면 병이 완쾌된다는 것도 강한 양기의 힘으로 액과 음을 누르고자 함이다. 중국 『수서·지리지』에도 “속설에 의하면 줄다리기로 귀신을 물리친다.”고 적고 있다.

전북 부안, 정읍, 김제 등지에서는 줄다리를 마치면 당산(나무, 돌)에 감는데, 이때 암줄을 밑에 깔고 숫줄을 위에다 덮는다. 이것을 성적 교섭으로 여긴다.

30 한양명, 「중당기기의 주술-종교적 성격과 기능체계」, 『민속연구』 제 4 집,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4, 55 쪽,

31 한양명, 「중당기기의 주술-종교적 성격과 기능체계」, 『민속연구』 제 4 집,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4, 63 쪽,

32 'Vietnam Festival & Folk Games' in Phu Quoc Explorer
<<http://www.phuquocexplorer.com/vietnamfestival.html>>

33 용몽하, 「줄다리기의 문화적 해석」, 『2010 기지시줄다리국제심포지엄』, 2010.4.9, (사)국제아세아민속학회, 45~46 쪽,

34 이장섭, 『촌락사회의 줄당기기 연구』, 영남대석사학위논문, 1984.

6) 남녀 줄다리기와 성행위의 모의

아시아의 줄다리는 남성과 여성이 편을 갈라 줄을 잡아당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공동체 공간을 동서, 남북, 상하 등으로 나누어 남녀 구분 없이 줄을 잡아당기지만, 동·북·상은 ‘남성’, 서·남·하는 ‘여성’을 나타낸 것으로 인식한다. 남녀의 구분에서 ‘여성’의 승리는 풍년을 예지해주는 것으로 인식한다.³⁵ 여성의 생산(다산)을 농업의 생산(풍요)과 관련 지은 것이다. 남녀가 나누어 줄다리를 하는 행위는 아시아 일대가 보편적이며, 남녀가 나누지 않아도 남녀로 인식하는 것은 일본도 마찬가지이다.³⁶

베트남 박닌(Bac Ninh) 지방의 호우 찹(Huu Chap) 마을에서는 미혼의 남자와 여자의 두 팀이 구성되어 경기를 하는데, 남성팀은 양과 건기를 상징하고, 여성팀은 음과 우기를 상징한다. 남성팀이 이길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개 여성팀이 이기도록 해서 풍년을 기원하기도 한다. 이러한 의례용 경기는 타이 소수민족들 사이에서 많이 나타난다.

캄보디아에서는 대개 남성과 여성으로 각각 나누어 줄을 당기는데, 이때 여성이 남성보다 수적으로 많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전략상으로, 각 팀은 힘이 센 사람을 중앙이나 끝 쪽에 배치했고, 보통 남자 팀원 중 한명이 중간에서 북이나 징 같은 악기를 들고 중앙에 서서 두 팀이 마주서도록 했다. 이 악기를 든 사람의 역할은 중간에서 북이나 징 소리로 각 팀을 응원하는 것이었는데, 경기가 한창일 때, 음악소리를 더 빠르게 연주해서 힘을 북돋아주었다. 그런데 전북의 외줄다리기에서 암줄에 젊은 총각을 포함시켜 승패를 정당하게 가르지만, 총각을 암줄에 포함시킨 것은 암줄의 승리를 간접적으로 염원한 것이다.

그런데 베트남 빈(Vinh) 지방의 덕손(Tich Son) 마을의 줄다리는 남성을 상징하는 동쪽 팀이 승리를 해야 풍년의 징조로 여기었다. 음력 1월3일 남자들만 참여하는 놀이로, 동서 방향으로 줄을 당긴다. 서쪽의 암줄과 동쪽의 수줄의 구분을 두고 암줄이 이겨야 그 해에 풍년이 든다고 여긴 대개의 다른 지역과는 달리, 나이가 더 많은 남성이 동쪽에, 더 젊은 남성이 서쪽에 서는데, 베트남 전통 신앙에 따르면, 동쪽의 팀이 이길 경우 풍년의 징조로 여겨 동쪽이 이기도록 했다.³⁷ 남성의 생식기 숭배사상이 숨어 있는 듯하다.

우리나라 쌍줄의 경우 성별을 부여하여 양성의 결합을 나타낸다. 따라서 두 줄의 연결은 남녀의 결합을 상징하고, 다산과 풍요를 의미한다. 암줄과 숫줄이 결합 때에는 직설적

³⁵ 남녀 구분 줄다리기에서 총각들은 진정한 남자로 인식하지 않아 줄 당길 때는 여성 줄을 잡아당긴다. 그래서 고의로 저주는 행위는 보이지 않으며, 힘센 총각들이 암줄을 잡아당기기에 놀이는 암줄이 승리하는 경우가 많다. 공동체를 구분 짓는 경우에는 이긴 해당 마을이 풍년이 든다고 하여 ‘여성’을 상징하는 마을에게 일부러 저주는 행위는 보이지 않는다.

³⁶ 사쿠라이 타츠히코 교수, 「아시아 줄다리기 그 분포와 특징」, 『2010 기지시줄다리기 국제심포지엄』, 2010.4.9, (사)국제아세아민속학회, 20~22 쪽.

³⁷ "Tug of War" in Vietnam Ethnic Cultures
<<http://vietnam-culture.blogspot.kr/2011/08/tug-of-war.html>>

인 성의 묘사가 이루어지고, 줄을 결합할 때 오랜 시간이 걸린다. 중국에서는 줄을 당길 때 몸을 굽혔다 펴는 동작을 성행위를 묘사한 것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이처럼 줄다리기는 남녀의 모의 성행위를 통한 풍요다산을 기원하는 주술적 기능이 있다.

일본 오키나와의 줄다리기도 성적 모의행위가 보이며, 그 목적이 기우로서 행해진다.³⁸ 즉 성적 관계에서 정액을 비로 인식하는 것이다. 송석하는 미얀마의 줄다리기도 비를 오게 하기 위한 주술적 의식으로 보았다.³⁹ 우리나라에서 가뭄이 들면 비정기적으로 줄을 당긴 사례가 경북 청송군,⁴⁰ 울산과 진주⁴¹ 등 여러 지역에서 보인다. 이것에 대해 용을 자극하는 행위로 보며, 정액인 비를 뿌려지기를 바라는 것은 디딜방아 다리를 하늘로 향하게 세운 기우제에서 보인다.

줄다리기 승패의 궁극적인 목적은 풍년에 있다. 당나라의 장설(張說)이 줄다리기를 구경하면서 쓴 시에도 “봄이 와 줄다리기 놀이를 하니 그 뜻은 가을의 풍년에 있다.”라고 그 목적을 바로 지었다. 『수서·지리지』에서도 줄다리기의 목적이 풍년이라 적고 있다.

7) 절기의 놀이

우리 줄다리기는 정월 대보름, 2월 초하루, 단오, 추석 등 절기에 즐기지만 정월 대보름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경우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새해를 시작하는 정월에 행해지며, 일본은 지역에 따라 즐긴 시기가 다르다.

중국의 전통 줄다리기는 현재 사라졌지만, 과거의 문헌을 보면 우리와 마찬가지로 정월 대보름에 거행하였다.⁴² 그 이유는 봄은 파종의 계절로 파종은 곧 교합을 의미하고 결실을 기원하는 것이다.

일본의 줄다리기는 오키나와로부터 동북지방에 이르기까지 분포하고 지역에 따라 노는 시기가 다르다. 우리의 줄다리기가 정월 대보름에 집중한 것과 달리 지역에 따라 놀이 시점이 차이를 보인다. 아오모리·아키타를 중심으로 한 동북지방과 교토·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관서지방은 정월 대보름에, 치바·이바라키를 중심으로 한 관서지역은 7~8월 15일에,

38 사쿠라이 타츠히코 교수, 「아시아 줄다리기 그 분포와 특징」, 『2010 기지시줄다리기 국제심포지엄』, 2010.4.9, (사)국제아세아민속학회, 20 쪽.

39 송석하, 「조선의 줄다리기에 대하여」, 『송석하의 재음미』, 국립민속박물관, 2006, 166 쪽.

40 한양명, 「줄다리기의 주술-종교적 성격과 기능체계」, 『민속놀이와 민중의식』(민속학회 학술총서)1, 집문당, 1996, 370 쪽.

41 임장혁, 『기우제고』,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34 쪽.

42 봉연(封演)의 『봉씨견문록(封氏聞見錄)』에 “줄다리기는 양한(襄漢)지역의 풍속으로 정월대보름에 거행하였다.”고 적고 있다. 『신당서(新唐書)-중종본기(中宗本紀)』에는 “경룡(景龍) 3년(709년) 2월 기축일에 중종과 황후는 현무문으로 나와 궁녀들의 줄다리기 하는 모습을 구경하였다.”, 『자치통감(資治通鑑)』 제 29권 “경룡 4년 봄, 2월 경술 어금원(御禁園) 구장으로 가서 3품 이상 문무관리들에게 편을 나누어 공놀이와 줄다리기 놀이를 할 것을 명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큐슈지방은 추석에, 오키나와는 햅쌀 수확기인 6월로 구분된다.⁴³ 결국, 일본 줄다리기를 대체로 정월과 6~8월에 벌이지만 농사력에서 보면, 어디서나 신년에 벌이는 셈이다.⁴⁴ 오키나와는 6월과 8월 사이에 농작물을 거두는 동시에 새로 씨를 뿌리기 때문이다.

소우가와 쓰네오와 사쿠라이 타츠히코 교수가 기술한 동남아시아의 줄다리기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⁴⁵ 단 그 내용이 비교적 단편적이지만, 동남아시아 줄다리기가 신년에 남녀로 구분지어 줄을 당긴다는 것은 우리와의 연관성을 가늠할 수 있다. 또한 연중이 아닌 기우제 때 줄다리기를 행한 것도 우리와 마찬가지로이다.

국가	시기 및 장소	방법	생업
대만 아미족	밤재배, 조 수확/사냥 동물 머리보관소		화전
말레이시아 보르네오섬	화전 볍씨 파종 때.	남녀	화전
인도네시아 타닌발섬	11월 파종. 포레카제(천부지모성교 축하)	남녀	화전
인도 아삼 아오·나가족	벼 파종 직후. 작두콩 줄기 줄	남녀	화전
발리섬 덴바서르	신년(3월말), 종려 줄.	남녀	수도작
말레이시아	신년	남녀	수도작
캄보디아	신년(4월) 물축제	남녀	수도작
라오스	신년(4월) 물축제	남녀	수도작
태국 삼족	신년(4월) 물축제, 기우제	남녀	수도작
원난성 다이족	신년(4월) 물축제	남녀	수도작
베트남	정월 3일(돈킨평야), 타이족(정월 15일)	남녀	수도작

라오스는 봄의 파종 전 농경의례의 하나로 줄다리기를 하는데, 줄은 뱀을 상징한다고 하며, 암줄이 이겨야 풍작이 된다고 믿었다.⁴⁶ 캄보디아에서는 4월 중순에 맞이하는 새해 축제에서 3일에 걸쳐 줄다리기를 즐긴다. 크메르인들은 이 놀이를 ‘줄을 당기다’라는 뜻인 ‘teanhprot’이라고 불렀다. 모든 사람들에게 허용된 놀이로, 마을이나 불교 수도원 같은 넓은 공간의 공중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나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지정된 장소에 모여 줄다리기를 했는데, 줄은 손목 굵기 정도이다. 캄보디아에서는 줄다리기의 기원을 캄보디아

43 사쿠라이 타츠히코 교수, 「줄다리기, 벼농사 농경문화와 해양 어로 문화의 결합」, 『제 3 회 아세아 줄다리기심포지엄』, 2009.4.11, 당진문화원, 40 쪽.

최인학, 「줄다리기에 관하여」, 『제 2 회 민속학회전국대회 발표요지』, 한국민속학회, 1973, 72 쪽.

유경재, 「아시아 줄다리기문화의 상호관련성」, 『2010 기지시줄다리기 국제심포지엄』, 2010.4.9, (사)국제아세아민속학회, 40 쪽.

44 김광연, 『동아시아의 놀이』, 민속원, 2004, 595 쪽.

45 소우가와 쓰네오 지음(이승수 옮김), 『놀이의 역사민족학』, 민속원, 2005, 160~165 쪽.

사쿠라이 타츠히코 교수, 「아시아 줄다리기 그 분포와 특징」, 『2010 기지시줄다리기 국제심포지엄』, 2010.4.9, (사)국제아세아민속학회, 21~23 쪽.

46 ‘줄다리기’,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143294&mobile&categoryId=200000425>〉

양코르와트 유적 제1회랑 벽면에 그려진 ‘우유의 바다 휘젓기(乳海攪拌)’ 조각을 든다. 다섯 개의 머리가 있는 큰 뱀을 동체로 오른쪽에는 신들, 왼쪽에는 악마들이 줄다리를 하는 모습인데, 이것은 줄다리로 승부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밧줄의 왕복 운동을 통해 유해를 교반시켜 영약 소마를 출현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농촌의 줄다리기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우유의 바다 휘젓기(乳海攪拌)’는 9세기 인도 편자브 지역의 그림에서도 보인다.⁴⁷

악마와 신들의 ‘우유의 바다 휘젓기’의 목적은 잃어버린 불멸의 만병통치약을 되찾는 것이었다. 12세기 말 지어진 캄보디아의 고대 수도도 이 신화를 모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도시를 들어가는 각 입구에 악마와 신들이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⁴⁸

8) 마을의 태평과 단합

줄다리기 문화현상을 이해하는데 ‘수도작’과 ‘벚짚’에만 방점을 두면 우리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줄다리를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줄다리는 수렵채취민, 농민, 어민 등 다양한 생업 집단이 참여하고, 마을의 남녀노소가 모두 참여하는 마을공동체 놀이이기에 가장 큰 목적은 마을의 태평과 단합에 있다.

줄다리는 마을의 액운을 막거나 우환이나 가뭄이 들 때도 당기었다. 대표적인 지역으로 기지시, 언양, 청도 화양, 삼척, 과천, 이천 등 우리나라 전역이 그러하다. 동아시아에서도 기우(祈雨)를 위해 줄다리를 한 사례들이 많다. 줄다리는 그 자체로서 싸움을 내포하고 있는데, 줄다리는 재액과의 싸움인 것이다. 인간집단의 응집된 힘의 과시가 곧 재액구축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다.⁴⁹ 줄다리는 민심의 동요를 막고 흩어진 노동력을 결집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도 이용되기도 하였다. 삼척 계줄다리가 그러한 사례이다. 결국 줄다리의 최종 방점은 마을의 태평과 단합에 있다.

줄다리기 전에 줄을 메고 마을을 도는 장면이나 메고 나가는 장면은 곧 용이 꿈틀거리 하늘로 날아다니는 것으로 인식을 한다. 또한 새롭게 탄생된 용의 생명력 과시 내지는 용출현의 형상화로 볼 수 있고, 그것은 용의 안위라는 해석으로 본다.⁵⁰ 그러나 용을 상징하

⁴⁷ 사쿠라이 타츠히코 교수, 「아시아 줄다리기 그 분포와 특징」, 『2010 기지시줄다리기 국제심포지엄』, 2010.4.9, (사)국제아세아민속학회, 24 쪽.

⁴⁸ ‘우유(젓)의 바다를 젓기’는 힌두의 신화로, 캄보디아 양코르와트의 부조벽화뿐 아니라 캄보디아 시내 곳곳에 위치한 사원이나 가정 집 입구에도 문양으로 그려져 있다. 신들이 전능의 힘과 영생의 삶을 살 방법을 비쉬누에게 물었더니 ‘젓의 바다에 갖가지 약초를 넣어 계속 저으면 감로수가 생성될 것이다. 그것을 마시는 자는 여생하게 된다’는 답을 내렸고, 이 바다는 생명의 근원을 의미하게 되었다.
<출처: http://en.wikipedia.org/wiki/Ocean_of_milk>

⁴⁹ 한양명, 「중당기기의 주술-종교적 성격과 기능체계」, 『민속연구』 제 4 집,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4, 61 쪽,

⁵⁰ 한양명, 「중당기기의 주술-종교적 성격과 기능체계」, 『민속연구』 제 4 집,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4, 53~54 쪽,

는 줄이 마을 전역을 도는 것은 ‘지신밟기’와 마찬가지로 마을의 태평과 안녕을 기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일본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도 줄다리기에 앞서 줄을 가지고 마을을 도는 의식을 치루며, 야쿠지마에서는 줄을 끌고 상하좌우로 흔들리면서 가는 것을 뱀의 출현으로 여긴다. 또한 가고시마(鹿兒島), 후쿠오카현(福岡縣) 치쿠고시(筑後市)에서는 동아줄을 둘러매고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도 많다.⁵¹ 줄을 매고 도는 이유는 마을의 태평과 조복재해를 기원하는 의식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줄다리기 본연의 의미가 서로 편을 나누어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도 한다.⁵² 즉, 마을의 평안 기원을 위해 줄 매는 의식이 잡아당기는 의식으로 변화하면서 점농(占農)과 생산과 여성 등의 관계가 형성되었고 본다.

줄다리가 승패를 보지 않고 줄이 끊어질 때까지 당긴 것도 줄다리가 또 다른 의미가 있음을 말해준다. 『동국여지승람』에는 제주도의 줄다리를 ‘조리희(照里戲)’라고 하여 줄이 끊어질 때까지 하였으며, 일본 가고시마(鹿兒島)에서도 줄이 끊어질 때까지 한 사례도 보인다.⁵³ 전북 정읍군 정량, 전남 순천 등지에서는 줄이 끊어져야만 줄다리의 효험이 있다고 하여 줄이 끊어질 때까지 줄을 당긴 사례가 있다. 이와 같은 사례와 줄을 당기고 줄을 즉시 토막 내는 것도 ‘용자극’의 일환이라고 본다.⁵⁴

캄보디아에서도 줄다리를 한 경기당 5분에서 10분 정도 소요되는데, 한 팀이 지칠 때까지 경기를 반복한다. 이는 경기적 요소보다도 종교적 의미가 강한 것인데, 캄보디아에서 새해에 줄다리를 하는 목적으로 한 해를 새롭게 하고, 완벽한 우주를 재창조 한다는 뜻을 포함한다.

3. 결론

동아시아 국가 중 여러 유형의 줄다리가 전승되는 지역은 우리나라가 대표적이다. 쌍줄, 외줄, 계줄(기줄) 등 지역에 따라 줄의 형태가 다르고 놀이 방식이 차이가 난다. 또한 줄다리가 단순히 놀이가 아닌 제의와 마을의 대동단결이 연결되어 있다.

동아시아의 줄다리의 특징에 대해서는 일본 학자들에 의해 정리되었다.⁵⁵ 소우가와 쓰네오(寒天恒夫) 교수는 동아시아 줄다리의 특징으로, ① 벼농사지대 ② 주로 벗짚 사

51 최인학, 「줄다리에 관하여」, 『제 2 회 민속학회전국대회 발표요지』, 한국민속학회, 1973, 73~77 쪽.

52 최인학, 「줄다리에 관하여」, 『제 2 회 민속학회전국대회 발표요지』, 한국민속학회, 1973, 76 쪽.

53 최인학, 「줄다리에 관하여」, 『제 2 회 민속학회전국대회 발표요지』, 한국민속학회, 1973, 73 쪽.

54 한양명, 「중당기기의 주술-종교적 성격과 기능체계」, 『민속연구』 제 4 집,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4, 55~56 쪽,

55 寒天恒夫, 「東アジアの綱引き」, 『季刊自然そ文化』 42 秋季號,, 1993, 4~11 쪽.

용 ③ 음력 정월 15일에 집중(농사의 시작) ④ 용(중국, 한국)과 뱀(일본) ⑤ 년점, 공동체의식 연대기능, 풍요 기원 ⑥ 암줄이 이기면 풍년 등을 들고 있다.

사쿠라이 교수는 아시아의 화전민과 수도작 민족, 즉 농경민에게 보이는 줄다리기의 공통점으로 7가지로 정리하였다.⁵⁶ ① 풍요기원의 농경의례 ② 신년 풍요의 길흉을 점치는 행위 ③ 성적 교제의 상징적 행위 ④ 여성의 승리는 풍요의 예측 ⑤ 천부지모성혼관념 ⑥ 쌍줄의 결합을 통한 하늘의 정액(비)이 내리기를 바라는 기우풍속 ⑦ 줄을 용사(龍蛇)로 인식(한일) 등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동아시아의 줄다리기는 신년에 풍요의 기원과 길흉을 점치는 행위이며, 줄을 잡아 당기는 행위는 남녀의 성적교제 또는 천부지모의 성혼관념에서 다산의 존재인 여성이 승리하면 풍요를 가져온다고 여긴 것이다. 또한 줄 자체를 수신인 용사(龍蛇)로 인식하고 기우(祈雨)를 바란 것이다.

이런 개념은 한국 줄다리기의 특징을 정리한 장주근과 김택규의 내용과 별 차이가 없다.⁵⁷ 다만 장주근이 제시한 보름날 만월의 생산력, 논밭 장소의 줄다리를 통한 성적 전염주술적 행위 등은 한국 줄다리기의 또 다른 특징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줄다리기의 기원에 대해서는 중국설, 동남아시아설, 인도설, 쌍방위설, 자생설 등으로 구분된다. 중국설은 줄다리에 대한 최초의 기록인 6세기 『형초세시기』의 기록에 근거해서 중국의 줄다리가 우리나라와 일본으로 전래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견해는 일반적이다.⁵⁸ 그러나 현재 중국의 줄다리는 소수민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절기로서의 놀이가 아닌 소수민족전통체육대회 종목으로 경기적 성격을 띠고 있다. 최근에는 과거 지방지의 기록을 참고 삼아 전통 줄다리를 재연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 대표적인 지역이 감숙성의 임담현(臨潭縣)의 줄다리기이다.⁵⁹ 그런데 중국의 전통 줄다리가 쌍줄이고, 줄다리기의 승패에 따라 풍년을 점친 것은 우리와 같다. 또한 줄의 재료로 삼이나 대나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문헌 내용의 한계와 전통 줄다리기의 단절로 그 실체를 파악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56 사쿠라이 타츠히코 교수, 「아시아 줄다리기의 분포와 특징」, 『2010 기지시줄다리기의 국제심포지엄』, 2010.4.9, (사)국제아세아민속학회, 20 쪽.

57 장주근, 「줄다리에 대하여」, 『한국문화인류학』 제 1 집, 한국문화인류학회, 1968, 56~62 쪽.
김택규, 『한국농경세시의 연구』, 영남대학교출판부, 1985.

58 최남선, 『조선상식』 풍속편, 102 쪽
寒天恒夫, 「東アジアの綱引き」, 『季刊自然そ文化』 42 秋季號,, 1993, 4~11 쪽.
苑利, 최성은 옮김, 『도작문화로 본 한국문화의 기원과 발전』, 민속원, 2005, 105~107 쪽.

59 중국에서는 무형문화유산사업이 3 차에 걸쳐 종목이 선정되었으나 지금까지 줄다리가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없다. 이로 보아 감숙성 임담현의 줄다리기는 재연은 그리 역사가 길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논문에는 구체적인 연도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명대에 쓰인 지방지의 줄다리기를 통해 600 여년의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다.(劉玉忠, 「臨潭萬人扯繩及文化探微」, 『甘肅高師學報』 第 16 卷第 4 期, 2011, 111~113 쪽.)

동남아시아설은 줄다리기와 쌀농사와의 관련성에 근거해 동남아시아의 쌀 재배 지역인 인도네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⁶⁰ 그 이유로 우리와 마찬가지로 동남아시아의 줄다리기가 벼농사와 관련이 깊고, 줄을 용이나 뱀으로 여기며, 줄다리를 성행위에 비기고, 여성쪽이 이겨야 풍년이 든다고 믿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실제, 중국 전통 줄다리기에서는 줄의 재료로 벗짚 대신 대나무 껍질, 삼 등이 재질로 사용되었으며, ‘이긴 쪽에 풍년이 든다.’라는 단편적인 기록은 있으나, 우리와 동남아시아처럼 다양한 주술적 종교행위는 보이지 않는다.

인도설은 줄다리기가 인도 밀교의 수행의례로 행해지다가 해류를 타고 오끼나와를 거쳐 우리나라로 전래되었다고 본다.⁶¹ 줄다리기가 벼농사가 아닌 종교 전파와 함께 우리나라로 전해진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 견해는 새롭지만, 줄다리기의 수전(水戰) 기원설, 농업 지역 분포 등에 대한 답을 내리기는 어렵다. 자생설은 기존의 연구들이 단순하게 문헌자료만을 가지고서 기원설을 유추하기 때문에 줄다리기가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음을 주장한 것이다.⁶² 줄다리기의 전파설은 단지 도작농경지대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전파론적 시점에서만 다루었지 그 경로와 시기에 대한 논증은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⁶³ 그러나 수도작을 많이 하는 지역에 줄다리기의 분포 밀도가 높다는 사실로 보아 줄다리기는 농경문화에 속한다고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다.⁶⁴

오늘날 산촌, 어촌지역에서 줄다리기를 놀이는 단지 현 생태환경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산촌민도 농민들의 이주로 인해서 형성된 것이고, 어촌도 어업을 전업으로 한 지역에서는 줄다리가 보이지 않고, 농업을 기반으로 한 권역에서만 줄을 당기기 때문에 줄다리는 농경을 근간으로 한 민속문화라고 할 수 있다. 해안가 지역의 줄다리기도 장소는 비록 해안이라도 암수의 결합을 통한 풍농을 기원한다. 따라서 오늘날 전승되는 농촌, 산촌, 어촌 등 모든 지역의 줄다리는 농업을 근간으로 한 우리의 중요한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전통 줄다리는 농경의례의 일환으로서 동아시아 전역에서 진행되는 공동의 유산이다. 각국의 문화나 기후, 환경에 따라 공통성과 독자성, 창조성을 지닌 전통 줄다리는 인류의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지녔으나, 오늘날 사회가 급변함에 따라 전통 줄다리기를 보호의 절실함을 더욱 인식하고 있다.

60 김광언, 『동아시아의 놀이』, 민속원, 2004, 598 쪽.

61 송화섭, 「동아시아권에서 줄다리기의 발생과 전개」, 『비교민속학』 제 38 집, 2009, 127~160 쪽.

62 임장혁, 「전통 스포츠로서 줄다리기의 역사」, 『한국체육사학회지』 14 권 1 호, 한국체육사학회, 2009, 107~108 쪽.

63 서해숙, 「도작문화축제로서 줄다리기의 전승 연구」, 『남도민속연구』 제 22 집, 2011, 143 쪽.

64 나경수, 「전남지역의 당산제 일환으로서의 줄다리기의 성격」, 『공연문화연구』 제 5 집, 한국공연문화학회, 2002, 79 쪽.